

미국, 특허출원 늘고 있다

파급지수는 일본 앞질러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최신호에서 최근의 미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집계, 90년대 들어 미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8년 미국내 전체 특허출원중 미국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51.9%다. 그러나 91년 들어 美기업의 비중은 53%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3.5%를 기록하는 등 美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은 해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정의 간소화 등 아이디어성 기술개발이 아닌 기초과학과 연계된 첨단기술의 특허에서는 미국기업이 일본을 단연 앞서고 있어 美日 기업간 경쟁력 재편까지 예고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를 비교하면 아직은 일본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별 순위를 보면 일본의 도시바가 1천1백76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히타치社(1천1백65건), 캐논社(1천1백18건)가 뒤를 이어 일본 기업이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미국 기업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9백95건을 기록,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고 IBM이 8백42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특정 부문의 특허가 다른 특허에 응용된 빈도수(파급지수)를 보면 순위는

크게 달라진다. 이 부문에서는 미국의 코르디스社가 2.68로 선두를 나타냈으며 제록스社가 2.08로 뒤를 이었다.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 자동차와 일본전신전화(NTT)가 2.05로 공동3위를 기록했지만 상위 15개社 가운데는 닛산자동차(10위 1.80) 캐논(13위 1.76)을 포함, 일본 기업은 4개社만 들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美日 기업간 특허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허가 기초과학 논문에 참고사례로 등장한 빈도수를 기초로 분석한 기초과학과의 연계도 조사에서는 日本기업은 상위 15개社 가운데 하나도 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본 기업이 특허출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며 「기초과학에 기반한 탄탄한 기술 잠재력은 미국이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의 생산방식은 특허분야에서도 서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세계기업의 기술력<92년>

순위	기업	기술력	특허건수	파급지수
1(3)	캐논(日)	1971	1118	1.76
2(2)	히타치(日)	1688	1165	1.45
3(1)	도시바(日)	1514	1176	1.29
4(6)	IBM(美)	1488	842	1.77
5(8)	제너럴 일렉트릭(美)	1236	995	1.24
6(4)	미쓰비시 전자(日)	1147	976	1.18
7(10)	모토롤라(美)	1126	671	1.68
8(5)	이스트먼 코닥(美)	1005	804	1.25
9(18)	제록스(美)	990	477	2.08
10(11)	AT&T(美)	955	528	1.81
11(16)	마쓰시타 전자(日)	931	732	1.27
12(7)	GM(美)	925	790	1.17
13(9)	후지 사진필름(日)	719	652	1.10
14(13)	닛산 자동차(日)	709	395	1.80
15(15)	NEC(日)	709	502	1.41
16(14)	텍사스인스트루먼트(美)	707	401	1.76
17(19)	후지쓰(日)	697	443	1.57
18(17)	듀폰(美)	644	684	0.94
19(12)	필립스(和)	589	607	0.97
20(29)	소니(日)	560	446	1.26

※ 파급지수는 다른 특허에 응용된 빈도, 기술력은 특허건수×파급지수, ()는 91년 순위.